

독립 인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스포츠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51년 제1회 뉴델리 아시안게임 개최 과정
및 함의를 중심으로*

신 민 하**

目	次
I. 머리말 / 34	
II. 아시안게임 구상의 기원과 대회 준비 과정 / 37	
1. 아시안게임 구상의 기원 / 37	

* 본 논문은 2025년 6월 7일 동명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인도학회 제 5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1951년 제1회 뉴델리 아시안게임 개최 과정과 목표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당시 발표는 슬라이드 12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만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기에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 장재진 교수님과 논평을 해주신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이지은 교수님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 논문에 대해 귀중한 조언과 세심한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도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강사. aparajito@naver.com

-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아시아 지역 종합경기대회 / 37
- 2) 손디의 아시안게임 구상과 네루의 지지 / 42
2. 아시안게임연맹의 설립 / 45
3. 대회 준비 과정의 위기와 극복 1949-1950 / 51

III. 아시안게임 개최와 합의 / 56

1. 아시안게임 대회 진행 개요 / 56
2. 아시안게임에 투영된 네루의 국가 비전 / 60

IV. 맺음말 / 68

주제어: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연맹,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인도, 인도 스포츠, 자와할랄 네루, 뉴델리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1951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안게임의 준비 및 진행 과정, 그리고 이 대회가 독립 인도의 국가 건설 초기 단계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합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본격화된 탈식민화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강조한 국가는 인도였으며, 그 중심에는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가 있었다. 1920년대 후반 인도 국민회의의 외교 책임자로 임명된 이후 다양한 외교 경험을 쌓은 네루는 모든 측면에서 극도로 취약한 상황 속에서 독립한 인도를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중시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로 확립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네루는 국제주의와 범아시아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였다. 한편, 네루의 비전과 활동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인

도의 스포츠 행정가들은 지역적 범위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한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구상하기 시작하였고, 네루는 스포츠가 아시아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도의 국내적 상황은 인도-파키스탄 분리독립으로 인한 종교 갈등과 대규모 난민 문제 등 아시안게임의 순탄한 준비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곳곳에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인도 정부와 스포츠 행정가들은 단합된 노력을 통해 개최국 인도를 포함한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1회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 인도는 범아시아주의에 기반하여 아시아의 통합과 연대를 주도하고, 국제주의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경기대회이자, 아시아의 정체성 형성과 지역 협력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 나아가, 독립 인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비전과 활동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향후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할 가치가 큰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I. 머리말

아시안게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과 달리 아시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종합경기대회이다. 이러한 지역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고, 총 49개의 국가로 구성된 아시아 전(全)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규모와 국제적 인지도 측면에서 올림픽 다음으로 저명한 국제 스포츠 행사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951년 제1회 대회 개최 당시 11개국 489명의 선수가 6개 종목(35개 세부 종목)에 출전하여 경기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22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회에서는 45개국 11,90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40개 종목(481개 세부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는 아시안게임이 첫 대회 이후 오늘날까지 70여 년 넘게 유지되어 온 유서 깊은 행사라는 사실과 함께 그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 스포츠는 서양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대중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언론 매체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여론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Riordan and Kruger 1999, ix).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Baron Pierre de Coubertin, 1863-1937)이 당대에 만연했던 자민족 중심주의, 계급 및 성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고자 스포츠를 매개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평화로운 교류와 선의의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림픽을 창설한 사례를 대표적인 예

로 들 수 있다. 한편, 스포츠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교육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식민지 인도를 비롯한 대영제국 곳곳에서는 영국인 군인, 선교사, 교육자들이 앞장서 스포츠, 특히 크리켓과 축구 등을 장려하면서 ‘야만적’인 식민지 사람들이 ‘문명화된’ 영국인의 생활 방식에 존경심을 갖게 하는 훈련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Kidd 2022, 144-145). 그리고 오늘날 글로벌 현상(global phenomenon)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한 스포츠는 각기 다른 방식과 속도로 각국의 문화적·사회적 부문에서 확고한 중심성(centrality)을 확보하고 있다(Gopal and Parkash 2021, 1).

인도의 스포츠 발전 역사도 앞서 설명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1947년 독립에 이를 때까지 장장 190여 년간 지속된 영국의 식민 지배는 인도에 쿠베르탱의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이 추구했던 평화와 화합의 정신이 아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본격화된 아시아 지역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인도의 국가지도자들과 스포츠 행정가들이 스포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도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통합과 연대를 주도하는 지도자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제1회 아시안게임의 개최였다.

제1회 아시안게임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제1회 대회에 관한 유의미한 분석을 일부라도 담고 있는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센(Sen 2015)은 인도 중세부터 근대까지 양궁, 레슬링 등과 같은 경기 종목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여 근

현대 인도 사회에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시소디아(Sisodia 2007)는 제1회 아시안 게임 개최 준비 과정에서 스포츠 행정가들의 비전과 활동을 분석하였다. 뢰브너(Hübner 2016)는 제1회 아시안게임의 개최 준비 및 진행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는데 당시 인도 정부와 스포츠 행정가들의 상호 작용, 인도와 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 변화까지 분석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마쭈다르와 메흐타(Majumdar and Mehta 2009)의 연구이다. 이들은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박물관에 소장된 인도 스포츠 행정가들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고받은 서신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상당 부분 공백으로 남아 있던 제1회 아시안게임의 역사를 최대한 복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제1회 아시안 게임의 개최 준비 및 진행 과정, 이를 주도했던 스포츠 행정가들과 특히 독립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1889-1964)의 비전과 활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제 II장에서는 아시안게임 구상의 기원과 대회 개최 준비 과정 전반을 살펴본다. 제 III장에서는 아시안게임 대회 진행 개요와 아시안게임에 투영된 네루의 국가 비전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본론에서 전개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아시안게임 구상의 기원과 대회 준비 과정

1. 아시안게임 구상의 기원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아시아 지역 종합경기대회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종합경기대회의 역사는 1913년 2월 3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극동선수권대회(Far Eastern Championship Games)로부터 시작된다.¹⁾ 이 대회는 쿠베르탱이 평화, 화해, 상호 지원을 강조하며 시작한 올림픽운동이 20세기 초부터 아시아로 확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도쿄·마닐라·상하이 등의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인을 문명화된 서양인과 경쟁할 수 있는 강인한 신체와 서양식 사고

1) 1913년 첫 대회 당시 일본, 중국, 필리핀 3개국의 개신교 선교단체 기독교청년회(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는 올림픽과 유사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공식 명칭을 극동올림픽피아드(Far Eastern Olympiad)로 결정하였다. 대회 폐막 이후 필리핀 YMCA의 사무총장이자 극동선수권대회의 창립을 주도한 미국인 엘우드 브라운(Elwood S. Brown, 1883-1924)은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uncil) 위원장 쿠베르탱에게 제 1회 극동올림픽피아드의 성공적 개최 및 대회 조직을 담당하는 극동올림픽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그런데 쿠베르탱이 '올림픽피아드'라는 용어는 올림픽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1915년 제2회 대회부터 대회 명칭은 극동선수권대회로, 조직위원회는 극동게임연맹(Far Eastern Games Federation)으로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ong and He 2021, 494-495를 참조할 것.

능력을 지닌 기독교도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전파하고 있던 YMCA의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개최된 국제 스포츠 행사였다(Krieger 2023, 124-125). 그런데 제1회 극동선수권대회는 일본, 중국, 필리핀 3개국만 참가한 행사였다는 점에서 범아시아적 연대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정서에 기초한 비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일본이 남북으로 분열된 중국 본토의 일부와 한국(당시 조선)을 점령하고 있었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한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쿠베르탱의 올림픽운동 정신보다 YMCA가 주도한 문화제국주의 전파 의지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²⁾

극동선수권대회는 1913년 이후 격년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국 간 경쟁을 위한 훈련의 장(場)이자 선수와 관중 모두에게 강인하고 남성다운 국가 정체성과 단결한 국가의 힘, 그리고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31년 9월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극동선수권대회는 존재 위기에 직면하였다. 1932년 일본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 1906-1967)를 꼭두각시로 앉힌 만주국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 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만주국이 독립 국가의 자격으로 제10회 극동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중국과 필리핀이 일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극동선수권대회는 1934년 5월 16일

2) 일부 연구자들은 극동선수권대회의 설립을 쿠베르탱과 YMCA가 주도한 올림픽정신 및 국제주의 확산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었으며, 더 나아가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로 인한 정치적 긴장을 극복하고 아시아인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의 기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각의 연구는 Hübner 2016의 제1장과 제2장을 참조할 것.

부터 20일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Hong and He 2021, 495).³⁾

한편, 극동선수권대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해인 1934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 기간 인도 뉴델리에서 제1회 서아시아경기대회(Western Asiatic Games)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극동선수권대회와 거의 유사한 조직 및 운영 방식을 지니고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극동선수권대회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위주로 진행된 데 비해 서아시아경기대회는 인도와 이웃하고 있는 ‘수에즈 동쪽과 싱가포르 서쪽에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Majumdar and Mehta 2009, 153-154). 제1회 대회에는 실론(Ceylon, 이하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팔레스타인 4개 국가가 참가하여 육상 경기, 수상 경기(수영, 다이빙), 필드하키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⁴⁾ 팔레스타인은 1938년 예정된 제2회 대회를 텔아비브(Tel Aviv)에서 개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제1회 대회 참가국을 비롯하여 네덜란

3) 제10회 극동선수권대회가 폐회식을 거행한 1934년 5월 20일 동양 아마추어체육협회(Amateur Athletic Association of the Orient)가 출범하였고 만주국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당시 중국인들은 5월 20일을 두고 ‘스포츠 역사에 있어 굴욕의 날(humiliation day in sport history)’이라고 불렀다. Hong and He는 극동선수권대회의 역사를 중국과 일본 간 정치적 갈등의 역사로 본다(Hong and He 2021, 495). 극동선수권대회의 종합적인 역사에 관해서는 Yan 2021을 참조할 것.

4) 제1회 서아시아경기대회는 빠띠알라의 마하라자 야다빈드라 싱(Maharaja Yadavindra Singh of Patiala, 1914-1974)이 주요 후원자였으며, 영국 식민정부로부터도 일부 경기 시설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뉴델리의 어윈경기장(Irwin Amphitheatre)에서 육상 경기와 필드 하키 경기가 진행되었고, 뉴델리에 적합한 시설이 없었던 수영과 다이빙 경기는 빠띠알라에서 진행되었다. 인도는 투포환과 계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우승하였다. 서아시아경기대회의 역사만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없다. 일부라도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Majumdar and Mehta 2009, 153-155를 참조할 것.

드령 동인도와 페르시아도 차기 대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조짐이 짙어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국내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제2회 대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38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종합경기대회의 명맥은 완전히 단절되었다(Majumdar and Mehta 2009, 155).

서아시아경기대회는 제1회 대회가 시작이자 곧 끝이었지만 행사가 조직된 배경 및 과정, 특히 이를 주도한 인물들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극동선수권대회가 개최 과정 전반에 걸쳐 서양 개신교 선교단체인 YMCA가 주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서아시아경기대회는 영국 식민지하 스포츠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던 인도인 스포츠 행정가들이 주도하여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들의 활동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본 연구의 주제인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⁵⁾ 특히, 1934년 당시 빠띠알라의 마하라자 야다빈드라싱의 지원을 받아 제1회 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을 진두지휘했던 구루 두뜨 손디(Guru Dutt Sondhi, 1890-1966)는 서아시아경기대회가 사라진 이후에도 인도 스포츠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 스포츠대회의 인도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

5) 인도의 올림픽운동 초창기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주체는 YMCA였다. 1924년 설립된 인도 YMCA는 인종 담론에 기반한 식민주의적 시각을 체육 교육 과정에 적용하였으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위한 훈련을 조직하고, 인도 스포츠의 발전 상황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인도 스포츠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인도가 올림픽 하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토착 왕국(Princely States)의 통치자들이 인도 올림픽협회(Indian Olympic Association)의 설립과 운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크리켓의 주요 후원자로 알려진 빠띠알라의 마하라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연차 회의에 인도의 상임 대표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YMCA는 식민지 인도의 올림픽운동 관련 업무에서 점차 소외되기 시작하였다(Naha 2021, 130).

하면서 아시안게임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손디는 1890년 12월 10일 라호르(Lahore, 현재 파키스탄 영토)의 *끄샤뜨리야(Kshtriya)* 계급 가문에서 출생하였다. 1905년부터 1911년까지 라호르대학교에서 교육받은 후 영국으로 건너가 1914년까지 케임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학부 시절 반 마일 크로스컨트리 챔피언이 되었고, 케임브리지에서는 하키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에 관한 관심을 키워 나갔다. 인도로 돌아온 이후 손디는 뽀잡대학교(Punjab University)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 행정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1926년부터 뽀잡올림픽위원회(Punjab Olympic Committee) 명예간사 활동을 시작으로 1928년 8월에는 인도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9회 올림픽에 인도 선수단 인솔 책임자로 참가하였다. 또한, 1932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을 담당할 서아시아경기연맹(Western Asiatic Games Federations)을 설립하고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직을 맡아 참가국 선정 및 초청, 대회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대회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참가국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당시 언론에서 ‘서아시아경기대회의 아버지(the father of the Western Asiatic Games)’로 불리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식민지 인도에서 아마추어 스포츠의 보급과 국제적 수준으로

6) 손디의 생애와 주요 활동에 관해서는 Sisodia 2007, 1-2; Hübner 2016b를 참조할 것. 제1회 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손디의 역할에 관해서는 *Times of India* 1934/01/17, 11(참가국 선정 및 초청); *Times of India* 1934/04/02, 13(대회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Times of India* 1934/03/05, 13; 1934/03/10, 19(대회의 정기적 개최 논의)를 참조할 것.

의 도약을 추구했던 손디의 적극적인 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2) 손디의 아시안게임 구상과 네루의 지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오랜 기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억압 아래 있었던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이루거나 독립을 앞두고 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자주적인 근대화를 통한 국가의 진보와 번영을 모색하는 이른바 ‘탈식민’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가난, 문맹, 실업, 질병 등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위해 투쟁해 온 아시아 신생 독립국 지도자들은 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단절되었던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손디는 스포츠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건설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45년 3월 손디는 인도 내 아마추어 스포츠 지도자들과 대회 조직 관련자들이 전후의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가 안정되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손디는 제2회 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전국하키선수권대회(National Hockey Championship), 국제크리켓대회(International Cricket Tournament), 국제축구대회(International Football Tournament), 수구대회(Water-Polo Tournament) 등의 개최 필요성과 구체적인 준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그는 자신이 제안한 국제 대회 중 일부라도 인도에서 개최되면 국내 스포츠계 전반의 도약을 위한 건설적인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하였다.⁷⁾ 그런데 손디는 제2회 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인도가 주최국을 맡고 인도올림픽협회 회장인 빠띠알라의 마하라자가 대회 자금까지 지원한다면 기존 회원국인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이란, 팔레스타인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손디는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경기대회 구상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디가 전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경기대회 개최를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한 계기는 1947년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관계회의(Asian Relations Conference)였다. 인도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독립 인도의 초대 총리로 내정되어 있던 자와할랄 네루가 주도한 것으로, 아시아 28개국 대표단 193명과 국제연합 및 5개 서구 국가를 대표한 참관단 51명 등 총 244명이 참가하여 탈식민 시대를 맞이한 아시아의 통합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한 명실상부한 국제회의였다.⁸⁾ 네루는 1946년 8월 31일, 아시아

7) 이 외에도 손디는 인도 스포츠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귀환한 군인들을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용해야 하며, 이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전문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함으로써 인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Times of India* 1945/03/13, 8)

8) 네루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후부터 탈식민 시대에 접어든 아시아 국가들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시아 국가를 한자리에 모으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46년 초 네루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참전하였다가 종전 후 인도로 귀환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한 전직 인도 군인과 포로들을 격려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말라야(Malaya, 오늘날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동안 네루는 미얀마의 아웅 산(Aung San, 1915-1947) 장군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

관계회의 개최 준비와 진행을 전담할 조직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손디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디는 1947년 초 인도올림픽협회 회장이던 빠띠알라의 마하라자에게 서신을 보내, 아시아관계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이 뉴델리에 체류하는 기간을 활용하여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경기대회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손디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마하라자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손디는 아시아관계회의 기간 중 진행된 여러 그룹 토론 가운데 ‘아시아의 노동문제와 사회적 서비스(Labour Problems and Social Service in Asia)’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자신이 구상 중이던 ‘아시안게임(Asiatic Games)’의 목적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손디의 제안을 경청하고 동의의 뜻을 표하였다. 또한 손디는 별도의 발표 요약문을 작성하여 가능한 많은 아시아 국가 대표단과 접촉하며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Asian Relations Organization 1948, 288; IOC 1951a, 22; Majumdar and Mehta 2009, 156).

손디는 자신의 구상을 네루에게도 전달하였고, 네루는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탈식민 시대 전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시도 과정에서 인도를 중요한 플랫폼(platform)이자 지도적 국가의 위치에 자리매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네

이 구상 중이던 범아시아 연대를 위한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 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참가 약속을 얻어냈다. 이러한 네루의 외교적 노력은 아시아관계회의로 현실화되었다. 아시아관계회의의 개최 준비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민하 2025, 127-143을 참조할 것.

루는 손디가 제안한 아시안게임 개최가 아시아 국가들이 평등, 자유, 우정, 우애와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다만 네루는 손디가 처음 제안한 대회 명칭인 ‘Asiatic Games’를 ‘Asian Games’로 변경할 것을 직접 제안하였다. 네루는 ‘Asiatic’이라는 용어가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 초창기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했던 동양학자(Orientalist)들이 형성한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⁹⁾ 손디는 네루의 제안을 주저함이 없이 수용하였다(IOC 1951a, 22; Majumdar and Mehta 2009, 157). 이는 1934년 서아시아 경기대회의 지리적 범위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한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해 네루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지원을 약속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는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 아시안게임연맹의 설립

아시안게임이 국제적 성격의 스포츠 행사였던 만큼 손디는 우선 인도올림픽협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고(*Times of India* 1947/07/23, 6), 1947년 7월 러끄나우(Lucknow)에서 열린 협회 연차회의에서 아시안게임 개최안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개최 문제를 둘러싸고 인도올림픽협

9) ‘Asiatic’이라는 용어는 영국인들이 식민지 인도에 설립한 여러 기관의 명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1784년 1월 15일 캘커타(오늘날 Kolkata)에서 창설된 뱅갈아시아학회(Asiatic Society of Bengal)를 들 수 있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훈글』에 포함된 한컴사전에서 ‘Asiatic’을 검색하면 ‘인종을 말할 경우 경멸의 뜻이 있다고 여겨져 Asian쪽을 쓰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영국인 동양학자들의 인식과 활동을 다룬 국내 연구로는 구하원(2013)과 이지은(2012)을 참조할 것.

회 내부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1948년 초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손디는 인도올림픽협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태의 스포츠 대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인도아마추어육상연맹(Amateur Athletic Federation of India)의 단독 승인만으로도 개최가 가능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Asian Athletic Championships)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¹⁰⁾ 1948년 2월, 인도아마추어육상연맹은 손디가 제안한 트랙과 필드 종목 중심의 대회를 1949년 2월 개최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연맹은 손디에게 대회 준비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손디는 즉시 초청 준비에 착수하였고, 1948년 7월 초 여러 아시아 국가에 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서한과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해 8월에 예정된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준비로 분주하였기 때문에 초청에 대한 반응은 미미하였다. 그럼에도 손디는 런던올림픽을 자신이 구상 중이던 대회의 취지와 계획을 아시아 각국 대표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였다(IOC 1951a, 22).

1948년 8월 런던으로 건너간 손디는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10) 당시 인도올림픽협회 구성원 상당수는 자금 부족 문제와 인도가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경기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디는 인도올림픽협회 회장인 빠띠알라의 마하라자와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대회의 성격을 인도올림픽협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육상 종목 중심의 대회로 급히 전환하였다. 한편, 빠띠알라의 마하라자는 손디의 제안을 수용하여 대회조직위원장직을 수락하였으며, 자신의 서명이 담긴 초청장을 발송하는 데에도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인도올림픽협회 내부의 이견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Hübner 2016a, 106; IOC 1951a, 22; IOC 1966, 40; Majumdar and Mehta 2009, 157을 참조할 것.

모든 아시아 국가대표팀의 대표자들에게 아시안게임연맹 창설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8월 8일 마운트 로열 호텔(Mount Royal Hotel)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버마(Burma, 오늘날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중국, 필리핀, 한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손디는 참석자들과 아시안게임연맹의 설립과 1949년 2월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아시안게임연맹 설립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관 초안 및 부칙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위원회는 인도, 중국, 필리핀, 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한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정기 대회가 아닌 초청 형식의 단발성 대회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및 부칙 초안을 1949년 2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제출하여 참가국들의 검토를 받은 후, 향후 이를 기반으로 육상을 포함한 종합경기대회로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¹¹⁾

한편, 아시안게임연맹의 정관 및 부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는 1936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

11) 1948년 8월 개최된 제14회 런던올림픽에는 레바논, 미얀마,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인도,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등 총 13개 아시아 국가가 참가하였다. 손디는 모든 아시아 국가 대표자들에게 아시안게임연맹 창립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등 이슬람권 국가들은 손디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실제로 1949년 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미얀마 1명, 스리랑카 1명, 인도 2명, 중국 1명, 필리핀 3명, 한국 2명으로 총 10명이었다(IOC 1951a, 23). 뢰브너(Hübner 2016a, 107)는 당시 이슬람권 국가들이 손디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도와 갈등 관계에 있던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를 위한 별도의 종합경기대회 설립을 옹호하고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한다.

로 활동하며 손디와 유사한 구상을 품고 있던 필리핀아마추어육상연맹(Philippines Amateur Athletic Federation) 회장 조지 바르가스(Jorge B. Vargas, 1890-1980)가 머물고 있던 마운트 로열 호텔의 객실에서 1948년 8월 11일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아시아아마추어육상연맹(Asian Amateur Athletic Federation)을 설립하고, 1949년 2월 뉴델리에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둘째, 1950년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한 모델을 참고하여 4년마다 아시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이 대회는 궁극적으로 아시안게임으로 발전시킨다. 해당 대회의 종목은 육상, 수영, 테니스(단식 및 복식), 야구, 하키, 농구, 배구, 축구, 복싱, 레슬링, 역도를 포함한다. 셋째, 대회 운영을 담당할 조직의 정관과 부칙은 1949년 2월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IOC 1951a, 23; IOC 1966, 40).

그러나 1949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런던올림픽 이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각국이 대회 연기를 요청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런던올림픽 기간에 합의된 아시안게임연맹 설립에 관한 논의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활동은 손디의 집요한 노력으로 중단되지 않았다. 손디는 아시아 각국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응답이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뉴델리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및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1949년 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뉴델리의 빠띠알라 하우스(Patiala House)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9개국의 스포츠 기구 대표자와 각국 대사관이 지명한 대표자 등 총 11명이 참석하

였다(IOC 1951a, 23; IOC 1966, 40).

1949년 2월 12일, 첫날 회의는 인도올림픽협회 회장 야다 빈드라 싱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회의 개최 목적과 아시안게임연맹 설립 취지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인도 총리와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보내온 축하 메시지가 낭독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맹의 초대 집행부 구성이 이루어졌다. 회장에는 야다빈드라 싱(인도올림픽협회 회장), 부회장에 조지 바르가스(필리핀아마추어육상연맹 회장), 명예사무총장이자 재무담당자로는 구루 두뜨 손디가 선출되었다. 이어 1948년 8월 런던올림픽 기간에 논의되었던 아시안게임연맹 정관 및 부칙 초안을 검토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튿날인 2월 13일 회의에서는 손디와 아프가니스탄 대표 나지브 올라(Najib Ullah) 박사의 주도로 정관 초안의 일부 조항을 국제올림픽위원회 정관과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대표들이 정관 최종본에 서명함으로써 아시안게임연맹 설립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표명하였고, 동시에 연맹의 초대 회원국으로 등록되었다. 한편,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대표들은 자국 정부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단체의 공식 기준을 조건으로 서명하였다(IOC 1951a, 23-24; IOC 1966, 41). 1949년 2월 13일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연맹의 명칭은 당초 제안되었던 아시아아마추어육상연맹(Asian Amateur Athletic Federation)에서 아시안게임연맹(Asian Games Federation)으로 변경한다. 기존 명칭의 'Athletic'은 미국식 용례로 육상에 한정되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경기 종목을 포괄하는 영국식 용어 'Games'로 대체하기로 한다.
- (2) 제1회 아시안게임은 인도올림픽협회의 제안을 수락하여 1950년 2월에서 3월 사이 뉴델리에서 개최한다.

- (3) 이후 대회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짝수 해마다 4년 주기로 개최한다.
- (4) 경기 종목은 육상(트랙과 필드), 수영 및 다이빙 등 국제 올림픽위원회 규정상 필수 종목을 포함하며, 그 외에 최소 4개국 이상이 출전 의사를 밝힌 아마추어 종목을 추가적으로 대회 종목에 포함시킨다.
- (5) 제2회 아시안게임은 195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다.
- (6) 손디가 제안한 연맹의 모토(Motto)와 엠블럼(Emblem) (<그림 1>)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IOC 1951a, 23-24; IOC 1966, 41; *Times of India* 1948/02/15, 8).

이로써 1947년 3월 아시아관계회의 기간 시작된 아시안게임 개최에 관한 구상은 거의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아시안게임연맹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¹²⁾

12) 아시안게임연맹은 1951년부터 1981년까지 아시안게임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아시아 각국이 올림픽 무대에서 자국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uncil)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연맹의 위상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아시아 지역 스포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상위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1년 11월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시아 34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참여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후 1982년 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안게임 기간 중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설립 과정에 관해서는 Hong and He 2021, 499-501; Krieger 2021, 107-117을 참조할 것.

<그림 1> 아시안게임연맹의 모토와 엠블럼¹³⁾



자료: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olympics.com/en/news/asian-games-first-country-host>

(2025/08/30 접속)

3. 대회 준비 과정의 위기와 극복 1949-1950

아시안게임연맹은 설립 직후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먼저, 아시안게임연맹은 1949년 10월 25일 회의를 열고, 대회 준비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집중해야 한다는

13) 손디는 올림픽의 모토인 ‘더 빠르게, 더 높고, 더 강하게(Citius, Altius, Fortius)’에 담긴 정신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진진하라(Ever Onward)’를 아시안게임연맹의 모토로 제안하였다. 엠블럼은 흰색 바탕 위에 아시아의 부상을 상징하는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아시안게임연맹 회원국 수를 상징하는 파란색 원형 고리가 서로 맞물린 형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IOC 1966, 41). 제1회 아시안게임에 총 11개국에 참가하기로 결정되면서, 엠블럼에는 이를 상징하는 11개의 원형 고리가 포함되었다. <그림 1>의 사진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국인 일본 대표가 제1회 대회 당시 제작된 아시안게임연맹 깃발을 넘겨받은 모습이다.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에서 개최 예정이던 영제국 경기대회(British Empire Games)¹⁴⁾에 인도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Times of India* 1949/10/26, 8).

대회 개최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적합한 경기시설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1949년 말까지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에 아시안게임연맹은 인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1949년 12월 회의를 개최하고, 인도 대통령 라젠드라 프라사드(Rajendra Prasad, 1884-1963)를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를 위한 ‘최고 후원자(Patron-in-Chief)’로 위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공보위원회(Publicity Committee), 인프라 및 교통위원회(Housing and Transport Committee) 등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Times of India* 1949/12/08, 11).

1950년 1월 19일, 네루가 1934년 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사용했던 어윈경기장을 철거한 자리에 기초석을 놓으면서 새로운 경기장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회 준비가 지연되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자 아시안게임연맹 창립 회원국들 사이에서 대회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대회 참가 의지마저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 결국 대회는 1950년 11월로 개최가 연기되었다(Hübner 2016a, 107-108; 122-123). 여기에 더해, 1950년 4월 13일 봄베이(Bombay,

14) 1930년 시작된 영제국경기대회는 1966년까지 ‘British Empire and Commonwealth Games’, 이후 1974년까지 ‘British Commonwealth Games’로 불렸으며, 이후 현재까지는 ‘영연방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도는 2010년 제19회 영연방경기대회를 뉴델리에서 개최하였다.

오늘날 Mumbai)에서 열린 인도아마추어육상연맹 회의에서 손디가 아시안게임 개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시안게임연맹 사무총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대회 준비는 한층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Mello 1959, 307). 1950년 4월 초부터 인도의 주요 스포츠 관련 기관인 국립스포츠클럽(National Sports Club) 내부 회의에서 경기장 건설이 11월 이전까지 완료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¹⁵⁾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곧 현실이 되었다. 아시안게임연맹은 1950년 7월 31일 뉴델리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7개 회원국 대표들을 긴급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대회 참가 희망국의 입장과 델리의 기후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를 1950년 11월에서 이듬해인 1951년 3월로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¹⁶⁾

손디의 사임 이후 아시안게임연맹 사무총장직을 맡아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까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당시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단체 중 하나였던 인도크리켓협회(Board of Control for Cricket in India) 회장 앤서니 드 멜로(Anthony de Mello, 1931-1987)였다. 카라치(Karachi) 출신으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수학한 영국계 인도인인 멜로는 인도크리켓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손디가

15) 국립스포츠클럽 주요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Times of India* 1950/08/21, 8에 실린 'Reasons for Postponement of the First Asian Games'라는 제하의 기사는 1950년 4월 12-13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립스포츠클럽 임원 회의에서 경기장 건설 지연으로 인해 아시안게임 개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아시안게임연맹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16) 이 회의에서는 제2회 아시안게임을 195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일본의 아시안게임연맹 회원국 가입 요청도 승인하였다. 아시안게임 개최 연기 결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Times of India* 1950/07/28, 8; 1950/07/31, 8; 1950/08/01, 8을 참조할 것.

회장으로 있던 인도아마추어육상연맹 부회장, 뭄바이지방올림픽협회(Bombay Provincial Olympic Association) 회장 등을 역임하며 인도 스포츠계에서 손디에 버금가는 명성을 지닌 스포츠 행정가로 알려져 있었다.¹⁷⁾

아시안게임 준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는 멜로가 인도 정부와의 협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그는 대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빠띠알라의 마하라자가 총괄 지휘를 맡은 이 위원회들은 인도의 최고위 관료, 왕족, 인도군 총사령관, 기업가, 건설업자 등 당대 인도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대거 위촉하였다(Mello 1959, 309-310). 멜로는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던 인도크리켓협회와 명예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국립스포츠클럽을 통하여 대회 준비에 필요한 총 60만 5백 루피 가운데 상당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또한, 아시안게임 참가선수과 관계자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인도군 총사령관(Commander-in-Chief) 꼬단데라 마다빠 카리아빠(Kodandera Madappa Cariappa, 1899-1993) 장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육군이 사용 중이던 두 개의 군용 막사를 비워 ‘아시안게임 선수촌(Asiad Village)’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던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 건설사와의 계약을 추진하여 어원경기장의 수용 인원을 최대 3만 명까지 확대하고, 1951년 1월 25일 완공된 경기장의 명칭을 네루와 논의하여 ‘어원경기장’에서 ‘국립경기장(National Stadium)’으로 변경하였다.¹⁸⁾

17) 멜로의 인도크리켓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Times of India* 1946/07/30, 6을 참조할 것. 뭄바이지방올림픽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Times of India* 1946/10/19, 10을 참조할 것.

18) 1951년 1월 25일 국립경기장 완공식과 관련해서는 *Times of India* 1951/01/26, 11을 참조할 것. 멜로는 네루에게 새로 건설된 경기장의 이름을 ‘네루경기장(Nehru Stadium)’으로 명명할 것을

아울러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신축하고,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질 소독 및 온도 조절 장비를 설치하여 감염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투포환, 허들 등 각 종목을 위한 최신식 스포츠 장비도 구입하였다(Hübner 2016a, 115-116; Mello 1959, 307-308; Sidodia 2007, 3).¹⁹⁾

대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서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대회 개최를 목전에 둔 1951년 2월 말, 아시안게임연맹 사무총장 멜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1회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이 상징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각자의 나라로 가져가길 바란다”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Times of India* 1951/02/28, 6).

제안하였으나, 네루는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국립경기장’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장 명명 과정에 대해서는 Majumdar and Mehta 2009, 165를 참조할 것. 한편, 국립경기장은 2002년 ‘메이저 드얀 찬드(Major Dhyhan Chand)’가 추가되어 오늘날에는 ‘메이저 드얀 찬드 국립경기장(Major Dhyhan Chand National Stadium)’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 19) 전체적으로 볼 때,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를 위한 자금은 멜로가 거의 전적으로 주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대회 참가자들이 반입한 스포츠 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인도 국내 여행 시 철도 운임 50% 할인, 대회 기간 중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Mello 1959, 313).

Ⅲ. 아시안게임 개최와 합의

1. 아시안게임 대회 진행 개요

1951년 3월 4일 오후 4시부터 국립경기장을 가득 메운 4만여 명의 관중 앞에서 제1회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11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을 선두로 자국 영문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경기장에 입장하였으며,²⁰⁾ 라젠드라 프라사드 인도 대통령에게 선수 전원이 단체 경례를 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아시안게임연맹 깃발이 게양되는 동안 프라사드 대통령이 개최를 선언하였고, 이어 예포 발사와 자유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델리의 붉은성(Red Fort)을 출발한 성화는 44명

20) 1948년 런던올림픽 기간 중 소집된 아시안게임연맹 설립 논의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1949년 2월 12-13일 뉴델리 빠띠알라 하우스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연맹 출범 회의 때 참석했던 파키스탄은 인도-파키스탄 분리독립 과정과 이후 양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까슈미르 문제로 인하여 인도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회에 불참하였다. 내분을 겪고 있던 중국과 베트남은 인도가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하였다. 아시안게임연맹 사무총장 멜로는 1950년 5월 레바논,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중동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아시안게임 참여를 독려했으나,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1951년 초 터키(오늘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스포츠 대회 참가 계획을 이유로 들어 불참하였다. 제1회 아시안게임에 불참한 국가와 그 배경에 관해서는 Hübner 2016a, 110; Levinson and Christensen eds., 1999, 22; Sisodia 2007, 4; *Times of India* 1950/08/21, 8을 참조할 것.

의 주자가 약 17.7km를 달려 국립경기장까지 운반하였으며, 1924년 파리올림픽 육상 종목에 인도 대표팀 주장으로 참가했던 달립 싱(Dalip Singh, 1899-미상, 1971-1982 사이 사망 추정)이 성화대에 점화하였다. 이어 인도 육상 대표팀 멀리뛰기 선수인 발데브 싱(Baldev Singh)이 선수 대표로 선서를 하고, 489명의 참가선수는 선서문을 복창하였다. 라젠드라 프라사드 대통령과 자와할랄 네루 총리의 연설이 끝난 뒤, 인도 국가(國歌)가 연주되는 가운데 선수 전원이 경기장 밖으로 퇴장하며 개막식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Mello 1959, 285-286; Sisodia 2007, 4-5, *Times of India* 1951/02/28, 6; 1951/03/04, 9).

경기는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8일간, 6개 종목(수영, 축구, 사이클, 역도, 축구, 농구)을 35개 세부 종목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²¹⁾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과 마찬가지로 각 종목 1위, 2위, 3위 선수에게 각각 금, 은, 동메달이 수여되었다. 종합 1위는 금메달 24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5개를 획득한 일본이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금메달 15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20개를 획득한 개최국 인도가 종합 2위를 차지하였고, 네팔, 태국, 아프가니스탄은 단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하였고 공동 9위를 기록하였다.²²⁾ 대회 참가국들의 메달 순위를 일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1) 제1회 아시안게임 진행 전체 일정은 *Times of India*, 1951/02/23, 6에 실린 'Programme for Asian Games'를 참조할 것. 종목별 금메달 수상자의 이름, 국적, 경기 기록은 IOC 1951b, 43-44를 참조할 것.

22) 아시안게임 참가국들의 메달 집계 및 주요 경기 결과에 대한 분석은 *Times of India* 1951/03/07, 6; 1951/03/10, 1; 9를 참조할 것.

<표 1> 제1회 아시안게임 종합순위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1	일본	24	21	15	60
2	인도	15	16	20	51
3	이란	8	6	2	16
4	싱가포르	5	7	2	14
5	필리핀	5	6	8	19
6	스리랑카	0	1	0	1
7	인도네시아	0	0	5	5
8	미얀마	0	0	3	3
9	네팔	0	0	0	0
9	태국	0	0	0	0
9	아프가니스탄	0	0	0	0
	합계	57	57	55	169

자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홈페이지

<https://oca.asia/games/107-new-delhi-1951.html> (2025/08/30 접속)

특히, 일본의 참가와 종합 1위 달성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였는데, 1950년 7월 아시아게임연맹 회의에서 일본의 연맹 회원 가입 요청이 승인되었고, 이후 여러 국제 스포츠 연맹이 이를 인정하면서 아시안게임에 어렵게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Times of India* 1950/08/01, 8). 이와 관련하여 뢰브너(Hübner 2016a, 114; 123)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휘청거리고 있던 일본이 제1회 아시안게임 참가를 통하여 평화, 평등, 민주주의라는 전 세계적 공통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합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평가한다. 흥미로

은 점은 일본의 이러한 의도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연맹 사무총장 멜로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일본과 필리핀은 엄밀하게 말해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었고, 양국 정부는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양국 선수들을 의도적으로 아시안게임 선수촌 내 인접한 숙소에 배정하였다. 대회가 끝날 무렵, 양국 선수들은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Mello 1959, 291-292)”고 적고 있다. 한편, 스포츠 경기와 별개로 아시안게임 개막식 당일 국립경기장 인근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는 이란, 인도, 태국이 준비한 자국의 전통 회화 및 조각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Times of India* 1951/02/23, 6). 이는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던 아시아 국가의 선수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도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폐회식은 3월 11일 마라톤 경기가 종료된 후 오후 5시 30분부터 국립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대회 참가자들은 국가 영문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입장하였으며, 개최국 인도는 마지막 순서로 입장하였다. 인도와 차기 대회 개최국 필리핀의 국기가 게양되는 동안 양국의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었다. 이후 야다빈드라 싱 인도올림픽협회 회장이 폐회를 선언하였고, 성화가 서서히 꺼지는 가운데 아시안 게임연맹 깃발이 내리지면서 대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Sisodia 2007, 5).

<그림 2> 제1회 아시안게임 기록 사진



(1) 개회식 행사에서 개최국 인도 선수단이 마지막으로 국립경기장에 입장하는 모습



(2) 개회식에 참석한 자와할랄 네루 총리와 야다빈드라 싱 인도올림픽협회 회장의 모습



(3) 자와할랄 네루 총리(제일 왼쪽), 앤서니 드 멜로 아시안게임연맹 사무총장(가운데)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



(4)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선수단 환영 행사에서 인도 대통령이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자료: (1)-(3):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홈페이지 <https://oca.asia/multimedia/games/107> (2025/08/30 접속), (4): *Times of India* 1951/03/03, 1.

2. 아시안게임에 투영된 네루의 국가 비전

제1회 아시안게임이 준비 과정에서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구루 두뜨 손디와 앤서니 드 멜로와 같은 인도인 스포츠 행정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손디와 멜로가 이 대회를 준비하는 험난한 과정에서, 아시안게임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와 인도 스포츠계가 이 대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

표의 기준은 자와할랄 네루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 이념에 기반한 국가 비전이었던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록 네루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재정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대회 준비를 담당할 스포츠 행정가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견고한 마스터플랜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네루는 1927년 2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정치적 망명자와 혁명가 170여 명이 참여한 브뤼셀피압박민족회의(Brussels Congress of Oppressed Nationalities) 참가를 계기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 방식을 여러 국가의 연대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회의에서 논의된 인종적 분열과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한 ‘반제국주의적 국제주의(Anti-imperialist Internationalism)’ 비전에 깊이 감화된 네루는, 영국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인도 민족주의 운동이 ‘협소하고 적대적인(narrow and antagonistic)’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상호 작용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만 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 평화, 사회 정의를 목표로 하는 국제주의의 한 ‘단계(stage)’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27년 이후, 네루와 그의 정치적 동지들은 스스로를 국제주의자로 자처하였으며, 인도 민족주의 운동은 국제주의에 기반을 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였다.²³⁾

23) 네루는 브뤼셀피압박민족회의 폐회 직후, 회의 진행 상황, 의제 목록, 주요 연설문과 선언문, 대표자 명단과 주소 등을 자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인도국민회의 운영위원회로 발송하였다. 이 문서들은 네루가 회의 기간 동안 반제국주의적 국제주의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 동시에 인도 민족주의 운동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성찰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네루가 작성한

브뤼셀피압박민족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융합에 관한 네루의 관심은 그가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의 범아시아주의²⁴⁾ 사상을 접목함으로써 폭력적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 인하여 단절된 아시아 전역을 통합한다는 비전과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²⁵⁾ 대표적인 예로, 네루는 1928년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의 외교 업무 책임자로 임명된 직후부터 평화주의

문서의 원문은 Nehru 1974, 278-297을 참조할 것. 1920-30년대 네루의 국제주의 비전 형성과 특징에 관해서는 Schöttli 2012, 63-67; Zachariah 2004, 58-102를 참조할 것. 브뤼셀피압박민족회의 참석이 네루의 국제주의 비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Louro 2018, 19-139를 참조할 것.

- 24) 타고르는 아시아를 ‘영원한 빛의 대륙(continent of eternal light)’으로 보았으며, 또한 ‘인간적으로 위대한 모든 것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성향, 즉 ‘영성이라는 공통적인 유대감(a common bond of spiritualism)’으로 결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아시아의 영성이 ‘기계적으로 완벽한 것’을 숭배하는 산업화된 서양보다 우월한 지점이라고 강조하였다(Keenleyside 1982, 211-212). 또한, 타고르는 1917년 출간한 『인도에서의 민족주의 (Nationalism in India)』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영적인 힘(spiritual strength)’, ‘단순함에 대한 애정(the love of simplicity)’,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인식(recognition of social obligation)’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친밀한 유대감의 토대라고 강조하였다(Tagore 2019, 6-7; 9).
- 25) 뿌라싸드는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난 아시아 민족 간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된 것을 아시아주의의 기원으로 본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가 히로히토의 쇼와(昭和, 계몽적 평화) 군주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였으며,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국주의적 허위의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시아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한다. 뿌라싸드는 이후 자와할랄 네루와 쏘원 등 진보주의 성향의 지도자들에 의해 제국주의로부터 침탈당한 아시아 대륙 전체의 연대를 강조하는 범아시아주의로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Prasad 2007, 27을 참조할 것.

전통이라는 문화적·정신적 요소를 공유하는 아시아가 서구 제국주의에 공동으로 투쟁하는 아시아정치연맹(Asian Political Federation) 설립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말 캘커타에서 개최된 인도국민회의 연차회의에서는 1930년까지 인도가 주도하여 ‘운명이 하나로 묶인 아시아(Asia whose fate is tied together)’를 대표하는 범아시아연맹(Pan-Asiatic Federation)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²⁶⁾ 한편, 네루의 범아시아주의 비전은 1942년 인도국민회의 봄베이 연차회의에서 결의된 ‘인도철폐운동(Quit India Movement)’을 계기로 한층 진전되었다. 당시 네루는 평화, 안보, 질서에 기초한 세계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연방(World Federation)’이 필요하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놓여 있던 아시아 민족들이 자유를 쟁취하고 향후 다시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시아 연대(Asian solidarity)’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강조하였다(Menon 2021, 49).

네루는 1946년 9월 초 영국 식민정부에 의해 인도의 독립을 준비하는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 of India)의 부통령(Vice-President) 겸 외교 담당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진행되는 아시아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통합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가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비전은 앞서 언급한 1947년 아시아관계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네루가 아시아관계회의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가장 중요

26) 이 결의안에는 인도국민회의에 소속되지 않은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도국민회의가 간디가 주도하는 대규모 시민불복종운동에 집중하게 되면서 해당 결의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Menon 2021, 44-45를 참조할 것.

한 목표는 평화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범아시아주의 이념의 중요성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 간 통합과 연대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과정에서 인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공식적인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시아관계회의는 1934년 단 한 차례 개최된 후 중단된 서아시아경기대회를 조직했던 손디가 지역적 범위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한 아시안게임 개최를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다시 말해, 원래 서아시아경기대회의 부활을 계획하고 있었던 손디가 행사의 지역적 범위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게 된 배경에는, 독립 인도의 총리로 내정된 네루의 국제주의와 범아시아주의 비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발언 및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연맹 설립 과정,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 및 진행 과정을 보면 손디와 멜로는 네루가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던 1947년 아시아관계회의의 지역적 범위와 개최 목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²⁷⁾ 이러한 배경에서,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 목표와 함의를 대회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나온 네루의 발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7) 네루는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던 시기에도 인도가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당초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회 아시아관계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네루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재점령 시도를 규탄하고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지지하기 위한 회담으로 계획을 전환하여 1949년 1월 뉴델리에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제연합에 전달되어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Pardesi 2024, 163). 또한, 1949년 10월, 네루는 정부 각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향후 인도가 아시아의 중심축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아시아의 미래는 인도의 미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Nehru 1992, 203)”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국내적 관점에서 볼 때, 네루는 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하여 오랜 식민 지배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네루는 아시안게임 개막을 2주 앞둔 1951년 2월 18일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아시아의 강대국을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국가 건설 과정의 초입에 있는 인도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체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잘 조직된 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가 설정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Nehru 1993, 105). 이어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둔 3월 2일, 주총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곧 개최될 아시안게임이 인도 국민 사이에 체육(athletics)과 경기(games)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신체적 수준(physical standards)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Nehru 1994, 536)”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신문,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하여 종교, 카스트, 성별에 관계없이 구성된 인도 국가대표 선수단 소식이 소개되면 독립 인도가 지향하는 다원주의적·세속주의적 국가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 전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²⁸⁾

한편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네루는 제1회 아시안게임이 1947년 아시아관계회의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통합과 연대

28) 인도의 국영 라디오 방송인 All India Radio는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개최식부터 폐막식까지 매일 2시간씩 여러 언어로 대회를 보도하며 인도 국민과 해외 청취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한편, 인도의 주요 일간지들도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연일 보도했는데, 특히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 전부터 국립경기장 완공(*Times of India* 1951/01/26, 11), 역도대표팀(*Times of India* 1951/01/31, 6; 1951/02/21, 7), 축구대표팀(*Times of India* 1951/02/03, 8), 하키대표팀(*Times of India* 1951/02/16, 6), 수영대표팀(*Times of India* 1951/02/21, 7) 등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를 강화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다만 아시안게임은 각국 지도자나 지식인 간의 토론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네루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연설에서 고대부터 활발히 교류하던 아시아가 18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로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국제 문제에도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네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가 탈식민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은 오랜 유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오늘날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이웃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비록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큰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토대인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력(forces)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갈등과 긴장이 만연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한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긴장을 완화하고 선의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Nehru 1994, 619).

네루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고도로 산업화된 서구의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적·군사적으로 결코 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확대될수록 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익에도 기여할 잠재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시안게임이 이러한 연대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에게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은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지

역 국가들에 대한 적대적 의미의 협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이 이웃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은 인도의 젊은 남녀들이 아시아 각국의 뛰어난 스포츠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도는 이 대회에 외국 선수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이번 대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의 선수들은 아마도 인도 선수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량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배한다면, 다음 번에는 여러분을 이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바로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스포츠 정신에 있어 승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대회를 통해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인들에게 결코 정복되지 않는 정신(unconquerable spirit)이 함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Nehru 1994, 620).

전체적으로 볼 때, 네루는 아시안게임이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정을 다지고, 더 나아가 탈식민화 과정에서 서구 열강에 맞서 상호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초국가적 플랫폼이 되기를 염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네루가 오랜 식민지배로 고통되어 있던 인도를 세계 질서 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인도의 단독 노선이 아닌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주도적으로 규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마쭌다르와 메흐타(Majumdar and Mehta 2009, 164)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독립 인도의 국가 건설에 전력을 기울였던 ‘1950년대 네루 시대 인도의 본질(essence of Nehruvian India in the 1950s)’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1951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안게임의 준비 및 진행 과정, 그리고 이 대회가 지닌 함의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대회의 개최 연도와 날짜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식민지 인도가 독립 인도로 전환하던 시기에 남다른 비전과 추진력으로 이 대회를 구상하고 실현한 몇몇 인물들과 그들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제1회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이전에도 아시아 지역에는 191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극동선수권대회와 1934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서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종합경기대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회는 각각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구분하여 개최되었기 때문에 참가국 수가 서너 개 수준에 그쳤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두 대회 모두 1938년을 기점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이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종합경기대회의 명맥은 완전히 끊겨버렸다.

인도 스포츠계에서 종합경기대회 개최 논의가 재개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즉, 오랜 기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압제하에서 신음했던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독립을 쟁취했거나 곧 쟁취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탈식민지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가는 인도였으며, 그 중심에는 독립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가 있었다.

한편,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서아시아경기대회의 부활을 모색하던 인도의 스포츠 행정가들은 네루의 국제주의·범아시아주의적 비전과 이에 기반한 외교 활동에 자극을 받아 지역적 범위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한 아시안게임 개최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네루는 이러한 구상에 대해, 스포츠가 아시아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네루와 인도 스포츠 행정가들이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이 구상의 단계를 넘어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 인도가 국가 건설 과정의 초입에 있었던 당시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곳곳에 산적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도-파키스탄 분리독립 과정에서 악화된 종교 갈등과 폭동, 그로 인해 발생한 1천만 명 이상의 난민 문제, 인도 전역에 흩어져 있던 565개 토착 왕국(Princely States)을 인도공화국에 편입시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까슈미르(Kashmir)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파키스탄과의 전쟁, 극우 힌두교도에 의한 국부(國父) 간디 암살과 그로 인해 고조된 사회적 긴장과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고갈된 인도 정부의 국고(國庫)가 그것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히 아시안게임 준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독립한 인도의 부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탈식민화 과정에서 인도를 중심 국가로 세우고자 했던 네루의 국가 건설 과정 전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는 애초 예정되었던 1950년 2월에서 같은 해 11월로, 다시 1951년 3월로 두 차례 연기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사이 참가 의사를 밝혔던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대회 개최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또한, 전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과 같은 국가들이 치한 급박한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그 영향이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력은 인도가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도전 과제였다.

비록 개최국 인도를 포함하여 11개 국가가 참가하였지만, 제1회 아시안게임은 여러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인도는 범아시아주의에 기반하여 아시아의 통합과 연대를 주도하고, 더 나아가 국제주의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경기 대회이자, 아시아의 정체성 형성과 지역 협력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독립 인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비전과 활동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향후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할 가치가 큰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1948. *Asian Relations: Being Report of the Proceedings and Documentation of the First Asian Relations Conference New Delhi, March-April 1947*. New Delhi: Asian Relations Organisaion.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1951a. "The First Asian Games Championships Will be Held in March 1951 at New Delhi", *Olympic Review*, Issue No. 25, 22-24.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1951b. "Report of the First Asian Games held at New Delhi", *Olympic Review*, Issue No. 27, 43-44.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1966. "The Asian Games, A Short History", *Olympic Review*, Issue No. 96, 39-41.
- Mello, Anthony de 1959. *Portrait of Indian Sport*. London: P.R. Macmillan Limited.
- Nehru, Jawaharlal 1974. *Selected Works of Jawaharlal Nehru Volume Two*. New Delhi: Jawaharlal Nehru Memorial Fund.
- Nehru, Jawaharlal 1992. *Selected Works of Jawaharlal Nehru Second Series: Volume Thirteen*. New Delhi:

Jawaharlal Nehru Memorial Fund.

Nehru, Jawaharlal 1993. *Selected Works of Jawaharlal Nehru Second Series: Volume Fifteen Part II*. New Delhi: Jawaharlal Nehru Memorial Fund.

Nehru, Jawaharlal 1994. *Selected Works of Jawaharlal Nehru Second Series: Volume Sixteen Part I*. New Delhi: Jawaharlal Nehru Memorial Fund.

Times of India 1934–1951.

2차 자료

구하원 2013.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와 『마누법전 (Mānava Dharmaśāstra)』의 번역”, 『인도연구』 제18권 2호, 1–34.

신민하 2025. “탈식민 시대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새벽: 1947년 아시아관계회의, 그리고 인도와 한국”, 『20세기 아시아, 탈식민으로의 경로(광복 80주년 독립기념관 개관 38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125–157.

이지은 2012. “인돌로지, 식민지 지식, 그리고 인도 근대역사학의 형성과 극복”, 『사람』 제42호, 87–116.

Gopal, Meena and Padma Prakash 2021. *Sports Studies in India: Expanding the Field*.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Hong, Fan and Gong He 2021. “The Asian Games, Asian Sport and Asian Politics”, In Fan Hong and Lu Zhouxian, eds., 2021. *The Routledge Handbook of*

- Sport in Asia*, New York: Routledge, 493–504.
- Hübner, Stefan 2016a. *Pan-Asian Sports and the Emergence of Modern Asia, 1913- 1974*. Singapore: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 Hübner, Stefan 2016b. “Guru Dutt Sondhi: Indian IOC Member and Visionary of Asian Integration through Sport”, *Education About Asia* 21(2), 29–34.
- Kidd, Bruce 2022. “Spor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Phillops Murray G., Douglas Booth and Carly Adams eds., 2022, *Routledge Handbook of Sport History*, New York: Routledge, 144–151.
- Keenleyside, T.A. 1982. “Nationalist Indian Attitudes towards Asia: A Troublesome Legacy for Post-Independence Indian Foreign Policy”, *Pacific Affairs* 5(2), 210–230.
- Krieger, Jörg 2021. “The Foundation and Early Years of the Olympic Council of Asia: A Controversial Body Making Controversial Politics” In Fan Hong and Lu Zhouxiang, eds., 2021, *The Routledge Handbook of Sport in Asia*, New York: Routledge, 107–117.
- Levinson, David and Karen Christensen eds., 1999. *Encyclopedia of World Sport: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uro, Michele L. 2018. *Comrades against Imperialism: Nehru, India and Interwar Internation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jumdar, Boria and Nalin Mehta 2009. *India and the Olympics*. New York: Routledge.
- Menon, Shivshankar 2021. *India and Asian Geopolitics: The Past. Pres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Naha, Souvik 2021. "The Rise of Modern Sport and the Olympic Movement in India" In Fan Hong and Lu Zhouxiang, eds., 2021, *The Routledge Handbook of Sport in Asia*, New York: Routledge, 126-134.
- Pardesi, Manjeet S. 2024. "Is India a South Asian or Asian Power?" In Jacobsen, Knut A. ed., 2024, *Routledge Handbook of Contemporary India*, New York: Routledge, 163-171.
- Prasad, Vijay 2007. *The Darker Nations: A People's History of the Third World*. New York: The New Press.
- Riordan, James and Arnd Kruger eds., 1999. *International Politics of Sport in the Twenty Century*. New York: E&FN Spon.
- Schöttli, Jivanta 2012. *Vision and Strategy in Indian Politics: Jawaharlal Nehru's Policy Choices and the Designing of Political Institutions*. New York: Routledge.
- Sen, Ronojoy 2015. *Nation at Play: A History of Sport in Ind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isodia, Mithlesh K. Singh 2007. "India and the Asian Games: From Infancy to Maturity" In Fan Hong, ed., 2007, *Sport, Nationalism and Orientalism*, New York: Routledge, 1-10.
- Tagore, Rabindranath 2009. *Nationalism in India*. New Delhi: Penguin.
- Yan, Wang 2021. "The Far Eastern Championship Games" In Fan Hong and Lu Zhouxiang, eds., 2021, *The Routledge Handbook of Sport in Asia*, New York:

Routledge, 505-508.

Zachariah, Benjamin 2004. *Nehru*. New York: Routledge.

웹사이트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ttps://www.olympics.com/en/> (2025/08/30 접속)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https://oca.asia/> (2025/08/30 접속)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Sports in the
Nation-Building Process of Independent
India:
Focusing on the Process and Implications of
Hosting the First Asian Games
in New Delhi in 1951**

Shin, Min-Ha*

Key Words : Asian Games, Asian Games Federation,
Olympic Council of Asia, India, Sport in
India, Jawaharlal Nehru, New Delhi

This study examined the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the 1st Asian Games, held in New Delhi from March 4 to 11, 1951, as well as the role and implications of this event during the early stages of nation-building in independent India. In the post-World War II period, when

* Lecturer,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was gaining momentum, India was the country that most actively emphasized the need for Asian unity and solidarity, with Prime Minister Jawaharlal Nehru at its center.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Indian National Congress's foreign affairs in the late 1920s, Nehru accumulated extensive diplomatic experience and, despite the extreme vulnerability of the newly independent nation, pursued a grand vision of establishing India as a country that prioritized peace and solidarity in a rapidly changing world order, particularly as a leader in Asian integration. To achieve this, Nehru undertook various initiatives based on internationalism and pan-Asianism. Meanwhile, inspired by Nehru's vision and activities, Indian sports administrators began planning the Asian Games with an expanded regional scope covering the entire continent. Nehru, convinced that sports could serve as a crucial platform for Asian integration and solidarity, expressed his deep interest and full support. However, India's domestic situation at the time posed multiple obstacles to the smooth preparation of the Games, including religious conflicts and the massive refugee crisis resulting from the India-Pakistan partition.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Indian government and sports administrators successfully organized the 1st Asian Games, which were attended by 11 countries, including the host nation. Through this event, India was able to build a positive image as a country that led Asian unity and solidarity based on pan-Asianism and, further, sought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based on internationalist principles. Moreover, the Games marked the starting point

of a continental multi-sport event representing the Asian region,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Asian identity and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that continues to this day. Furthermore, the Games vividly reflected the vision and actions of India's leaders during the nation-building process, making this topic a research subject of considerable value for future reinterpretation from multiple perspectives.